

바이오헬스 투자 시장 활성화 위해 K-바이오·백신 펀드 지속 확대

- K-바이오·백신 펀드 5호, 6호 펀드 운용사 선정 -
- K-바이오·백신 펀드 3호는 800억 원 우선 결성해 투자 개시 -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는 9월 30일(화) K-바이오·백신 5호, 6호 펀드 주관 운용사로 각각 씨케이디창업투자·메디톡스벤처투자(5호 공동운영)와 키움인베스트먼트·디에스투자파트너스(6호 공동운영)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.

보건복지부는 한국벤처투자를 통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K-바이오·백신 5호, 6호 펀드 운용사 선정 공모를 진행*하였고,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, PT 심사 등을 거쳐 운용사를 최종 선정하였다.

*「바이오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K-바이오백신 펀드 신규 운용사 모집」(7.25일 보도참고자료)

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2025년 12월까지 민간 출자금을 추가로 확보하여 5호는 500억 원, 6호는 600억 원 등 총 1,100억 원을 결성할 예정이다. 각 펀드 최소 결성액의 70%(350억 원)가 조성되면 우선 결성 절차를 통해 조기 투자도 개시할 수 있다.

이번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바이오헬스 전 분야 국내기업 60%와 백신 관련 혁신기술 및 제조공정 개발 기술 등 국내기업 10%로, 총 8년(투자기간 4년, 회수기간 4년) 동안 운영한다.

더불어 올해 3월에 운용사를 선정한 K-바이오·백신 3호 펀드(주관 운용사 데일리파트너스)는 정부 400억 원과 민간 400억 원 출자를 통해 800억 원 규모로 우선 결성*됐다고 밝혔다. 이번 3호 펀드의 우선 결성으로 K-바이오·백신 펀드는 총 4,666억 원(1호~4호)**이 결성됐다.

* 최소 결성액(70%) 이상으로 투자금이 조성되면 투자를 조기 개시하는 절차

** (1호 펀드, 유안타인베스트먼트) 1,500억 원, (2호 펀드, 프리미어파트너스) 1,566억 원
(3호 펀드, 데일리파트너스) 800억, (4호 펀드,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) 800억

K-바이오·백신 펀드는 23년부터 결성되어 현재까지 25개 기업에 1,208억 원 투자를 집행하였고, 이 중 주목적 투자 분야에 23건 1,158억 원을 투자(주목적 비중 95.9%)하며 바이오 투자 시장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고 있다.

참고로 바이오헬스 1기 펀드('13년~'21년)는 6,950억 원이 조성되었으며 111건 (107개 기업)에 5,836억 원을 투자하였다. '25년 8월 기준 투자받은 기업 중 19개 기업이 신규 상장에 성공하였다.

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“바이오헬스산업의 생태계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하는 K-바이오·백신 5호, 6호 펀드 운용사 선정과 K-바이오·백신 3호 펀드의 투자 개시로 올해까지 6,000억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기대한다”라며, “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, 내년에도 임상 3상 특화 펀드 및 K-바이오·백신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.” 라고 밝혔다.

<붙임> K-바이오·백신 펀드 사업 개요
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	책임자	과 장	임강섭 (044-202-2960)
		담당자	서기관	신태 환 (044-202-2970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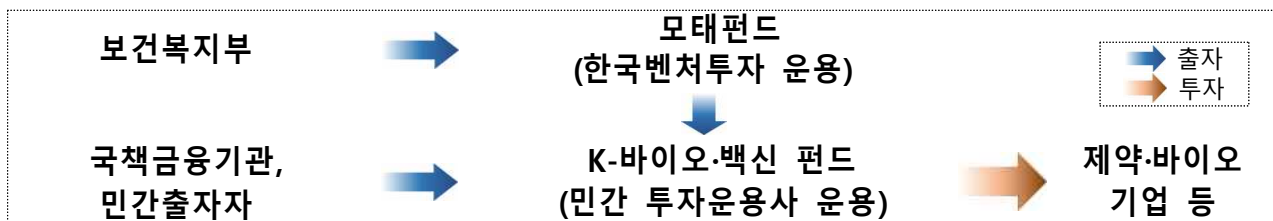
1. 추진 배경

- 복제약 중심의 제약산업 구조를 탈피하고,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메가 펀드 조성

2. 주요 내용

- (투자 대상) 신약개발 등을 위해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제약바이오 기업 및 백신 분야 기업(1호 펀드) →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 및 백신 관련 혁신 기술 개발 기업(2~4호 펀드)
- (운영 방식) ①정부는 펀드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을 출자, ②한국벤처투자는 펀드를 관리, ③선정된 운용사는 실제 투자집행
 - * 운용기간 : 8년, 투자(납입)기간 : 4년

<K-바이오·백신 펀드 운영체계(안)>



3. 추진 현황

- 1기(제1호~제7호, '13~'21년 조성) 및 2기 펀드(K-바이오·백신 펀드, '23년~) 조성하여, 11개 자조합, 11,616억 원 규모 조성
 - (1기 펀드) 6,950억 원 조성하여 111건(107개 기업) 5,836억 원 투자*, 19개 기업이 신규 상장 성공('25.8월 기준)
 - * 제약(59.3%), 의료기기(20.2%) 분야에 집중투자, 2개 펀드 청산하여 1호 수익배수 (Multiple) 2.37, IRR 40.99%, 3호 수익배수 1.1, IRR 2.1% 달성
 - (2기 펀드) K-바이오 백신·펀드를 조성('23년~)하여 누적 4,666억 원 결성, 25개사 1,208억 원 투자*('25.8월 기준)
 - * 제약 19개 기업 943억 원(78.1%), 의료기기 4개 기업 215억 원(17.8%) 집중투자

< 보건 계정 펀드 조성 현황(1기) >

구 분	제1호	제2호	제3호	제4호	제5호	제6호	제7호	1기 펀드 소계
	글로벌 제약펀드	글로벌 제약펀드	한국의료 글로벌 진출펀드	글로벌 헬스케어 펀드	바이오 헬스케어 펀드	K-Bio 신성장 펀드	K-Bio 신성장 펀드	
주관운용사	인터베스트	한국투자 파트너스	케이티비 파트너스	케이비 인베스트먼트	시너지아이비 투자	이앤 인베스트먼트	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	-
조성연월	2013.9	2014.12	2015.4	2016.1	2018.10	2021.4	2021.4	-
조성액	1,000억 원	1,350억 원	500억 원	1,500억 원	300억 원	1,300억 원	1,000억 원	6,950억 원
조성방식	VC	PEF	PEF	VC	VC	PEF	VC	-

< K-바이오·백신 1~6호 펀드 추진 현황(2기) >

구 분	제8호	제9호	제10호	제11호	제12호	제13호	2기 펀드 소계
	K-바이오· 백신 1호 펀드	K-바이오· 백신 2호 펀드	K-바이오· 백신 3호 펀드	K-바이오· 백신 4호 펀드	K-바이오· 백신 5호 펀드	K-바이오· 백신 6호 펀드	
주관운용사	유안타 인베스트먼트	프리미어 파트너스	데일리 파트너스	솔리더스 인베스트먼트	씨케이디 창업투자	키움 인베스트먼트	-
조성연월	2023.11	2024.6	2025.9	2025.4	2025.12 예정	2025.12 예정	-
조성액	1,500억 원	1,566억 원	800억원	800억 원	2025.12 예정	2025.12 예정	4,666억 원
조성방식	PEF	VC	PEF	VC	VC	VC	-

4. 향후 계획

○ 5~6호 펀드* 조성(~'25.12월.) 및 1조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(~'27년)

* 500억 원 이상 규모 2개 펀드(총 1,100억 원 조성)